

# 2018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

## 제4회 코리안 시즌

2018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진출 협력사업

### FAQ

#### Q1. 협력사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?

- ‘난타’, ‘점프’, ‘카르마(무무)’, ‘비밥(Chef!)’, 국수호의 ‘코리안 드럼’, 토리노동계올림픽 오프닝공연 ‘카타클로’, ‘하이킥’, ‘타고’, ‘셰프’ 등의 한국공연을 성공적으로 해외에 유치한 프로젝트팀의 컨설팅과 에든버러 최고의 공연장 어셈블리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.

#### Q2. 어셈블리 공연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.

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 온 극장이자, 프린지 최고의 극장이란 명성과 함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어셈블리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내의 22개 공연장에서 자체적으로 Assembly Festival을 진행하며, 연극, 코메디, 카바레, 무용, 음악 공연 등 200여편 이상의 다양한 공연물을 선보이며 유명 코메디언을 키워낸 극장으로도 유명합니다.

한국공연으로는 1999년과 2000년 ‘난타’와 2005년과 2006년 ‘점프’, 2010년 ‘비밥(CHEF)’과 2011년 국수호의 ‘코리안 드럼’ 등을 상연한 바 있으며, 성공적인 프린지 공연과 해외진출에 견인차 역할을 한 극장입니다.

2008년부터 프린지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4개의 극장(Big 4)를 연계하여 프린지 페스티벌 내의 ‘코메디 페스티벌’을 운영하고 있으며, ‘공연장 프로그램북’과 ‘Big 4 프로그램북’을 60만부 이상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.

- ▶ 어셈블리는 에든버러의 랜드마크인 Assemblyhall(국회의사당)을 메인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.



### Q3. 협력사업에 포함된 사항은 무엇입니까?

- 어셈블리 공연 상연기회: 에든버러의 360여개 공연장 중 최고라는 명성을 가진 어셈블리는 공연선별작업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. 2015년부터 에이투비즈와의 협약으로 코리안시즌을 진행하며 매년 협약된 수의 한국공연을 공동선정방식으로 상연하게 되었습니다.
- 통합 홍보/마케팅: 코리안시즌에 선정된 공연팀의 자료를 모아 현지 On/Off-line 홍보/마케팅을 진행합니다.
- 기본 장비: 공연장 내의 기본 장비 사용 (공연별 추가장비 불포함)
- 전략 컨설팅: 전문인력의 공연별 현지 홍보/마케팅 전략 컨설팅
- 축제 등록, 공연장 등록 업무 등 행정 자문
- 그 밖의 사전 업무(항공, 운송, 숙박, 현지 일정 관리 등) 및 현지 진행 컨설팅

### Q4. 공연단체(기획/제작사)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?

- 항공 및 운송 : 선정 후 국제교류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업무를 지원합니다. 1차적으로 공연단체에서 기본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- 현지 체재비 (숙박, 식사 및 예비비)
- 축제등록비 및 AD비용
- 공식 프로그램북 등록 및 AD비용
- 개별 홍보/마케팅비용 (선정 후 컨설팅 진행)
- 대관료: 기본 20% Deposit + Ticket Sales 쉐어 (or 기본대관료 납부)

※ 기타 문의사항은 본사 이메일([info@atobiz.co.kr](mailto:info@atobiz.co.kr)) 또는 본사 홈페이지 ([www.atobiz.co.kr](http://www.atobiz.co.kr))내 'Contact us'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